인도 보험산업 제도 변화와 시사점

이소양 연구원

■ 2015년 3월 인도 국회는 외국인의 투자한도 확대, 보험회사의 사업비지출 및 보험설계사 수당지급 기준 개편,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판매채널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법 수정안을 통과함.

- 동 보험법 수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투자한도는 기존의 26%에서 49%로 인상되었으며 외국인의 투자방식은 기존의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보험회사의 주식 매입까지 확대됨.
- 보험회사의 사업비지출 및 보험설계사 수당지급 상한 기준은 동 보험법 수정안으로 개편되었으며, 보험회사의 책임 이행 범위는 기존의 자사에서 보험설계사까지 확대됨.
  - 보험회사의 사업비지출은 영업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설계사 수당지급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15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
- 동 보험법 수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회사(Insurance Marketing Firm)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 마케팅 회사가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.
- 한편, 2015년 1월 인도 중앙은행(Reserve Bank of India)이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출자하여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 중개회사는 보험판매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
■ 인도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가 2011년부터 연속 3년 감소한 후 2014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제도 변화가 요구돼 왔음.

- 인도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는 2000년 시장개방 이후 99억 달러에서 2010년 784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명보험 관련 규제강화로 201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여 2013년 656억 달러에 그침.
  - 2000년 인도 정부는 보험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국유 보험회사의 서비스 문제 개선을 위해 민간 자본의 독자 보험회사 설립 및 외국자본의 합작 보험회사(외국자본 출자 상한이 26%로 제한) 설립을 허용함.
  - 2010년 인도 정부는 생명보험 투명성 제고 및 불완전판매 문제 개선을 위해 변액보험(Unit-linked

Insurance Plan) 및 유니버셜라이프보험(Universal Life Insurance)에 대해 수수료 상한액 설정, 보험기간 연장, 판매 수수료 지불방법 변경, 보험 해약 불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발표함.

- 2014년 인도 보험시장 총수입보험료는 699억 달러로 전년대비 6.5%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0년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음.

전문가들은 동 보험법 수정안이 인도 보험산업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.

- 외국인의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신규 투자는 외국인의 투자한도 확대로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 보험회사의 경영 노하우는 인도시장에서 보험상품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유발할 것으로 평가됨.
  - 인도상공회의소(FICCI)는 향후 10년간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규 투자가 약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- 인도 보험회사는 사업비지출 및 보험설계사 수당지급 상한 기준의 개편으로 새로운 영업지역 개척 및 고객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.
-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는 인도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, 판매채널 활성화 조치는 보험회사의 새로운 고객 확보 및 수익원 다원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.

대다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인도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.

- 2014년 인도의 보험밀도는 세계 평균 662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55달러이며 보험침투도도 세계 평균 6.2%에 못 미치는 3.3% 수준인데, 이는 인도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.
- 일본 Tokio Marine Holdings Inc 및 프랑스 Axa S.A.는 이미 인도 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(FIPB)의 허가를 받고 각각 인도 합작 보험회사에서 보유한 지분 비중을 기존의 26%에서 49%까지 높일 예정임.
  - 호주 QBE, 영국 Standard Life 및 독일 Dutch insurer Aegon는 각각 합작 보험회사에서 보유한 지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함.
- 다만 일부 보험회사들은 경영권 행사 불가능, 보이지 않는 장벽 존재로 인도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.

(EY, A.M. Best, Swiss Re 등)